이번 분석에서는 수집한 코퍼스를 바탕으로 논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텍스트 표지를 찾고자 한다. 선행연구 중 유해준(2017)은 인문사회 분야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여 학술 논문 텍스트의 전형적인 특성을 텍스트 표지를 통해 밝히고자 했다. 여기서 ‘표지’는 글 내용의 전개를 담당하는 담화 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술 논문은 세부 전공 영역 별로 구조 및 문체상의 특징이 다르므로 각 영역 별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시작으로 국어학 및 한국학 소논문 10편의 서론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연구 대상 범위를 더 넓혀 수집한 6개의 계열 논문의 서론과 결론을 분석함으로써 논문 텍스트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론은 서론과 결론에 비해 길이가 길고, 논문의 주제에 따라 내용 및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자세한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또한 유해준(2017)은 10편의 서론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여 한마루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빈도 어절들을 추출해 분석하였으나, 10편이라는 적은 수의 논문으로는 antconc를 이용했을 때 유의미한 고빈도 어절들이 추출되지 않았다. 10편 이상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하기에는 수집한 코퍼스가 서론, 본론, 결론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시간 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 논문을 읽으며 전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기술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논문 텍스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어문학**

어문학 분야에는 서론, 결론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표현이 사용된다. ‘서론/결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논문에 따라 ‘서언/결언’, ‘들어가며/나가며’, ‘들어가는 말/나오는 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어문학 분야 논문 서론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다룰 때에는 대부분 그 한계를 함께 지적하여 논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다른 분야와 크게 차이가 없다. 각 요소별로 사용되는 어휘 및 문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에 대한

본 논문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 다루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탐구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한계점

지금까지~이루어져 왔다.

~시도되어 왔다.

~한계가 있기도 하다.

~사실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 활용하여 ~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 분석하여 ~을 수행

본 논문은 ~가 어떻게 ~되었는지 ~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살펴보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 제시하고자 한다.

어문학 분야 서론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의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사람의 물리적인 이동은 전 지구상에 걸친 ‘생활 방식’이 되었다.

또한 문학 분야 논문의 경우 논문의 시작이 문학 작품의 인용인 경우도 있었다. 드물게 서론에서 이어지는 차례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연구목적을 제시하는 논문이 종종 있었으나 다른 요소들에 비해 양이 적어서 서론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문학 분야 결론에 주로 나타나는 요소는 논문 내용 요약과 의의 제시였다. 이는 결론의 거의 필수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각 요소별로 자주 사용된 어휘나 문장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 살펴보았다.

의의 제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를 통하여 ~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시도는 ~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

결론에서는 그 외에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거나 논문의 한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문학 분야만의 결론의 특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문학**

인문학 분야에서는 기존에 조명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는 글이 많다. 또한 인간의 삶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 대한 한계, 개선점을 밝히기도 한다. 서론과 결론은 각각 ‘1. 서론’, ‘4. 결론’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문학과 비슷하게 ‘머리말’과 ‘맺음말’, ‘들어가는 말’과 ‘나오는 말’ 등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인문학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한다. 기존의 연구에 대한 반박이나 새로운 관점의 연구 등을 위해 연구의 목적을 자세히 밝힌다. 목적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조명’ 또는 ‘하고자 한다’와 같은 표현을 이용한다.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밝힌다. 또한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의의 또한 밝히는 경향이 있는데 ‘도움’, ’의의’, ’준거점’ 등의 직접적인 명사를 사용한다.

목적

그 같은 맥락에서 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 밝혀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

이 글은 ~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왜 ~던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를 지적하고자 한다.

의의

~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 의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 분야의 결론에서는 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언급한다. 어떠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것에 대하여 의의를 말하는데, ‘기대’, ‘의의’ 등의 명사를 이용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의 연구에 대한 한계 또한 언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요약

이 글에서 필자는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을 살펴보았다.

~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 방안을 제시하였다.

~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의의

~해 줄 것을 기대한다.

~ 가졌음을 발견했다.

~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새로운 ~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개선점, 한계

아울러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

그러나 여전히 ~ 발전시켜야 하는 점들이 많다.

~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대부분의 사회과학 논문은 서론에서 연구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해당 연구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 논문은’, ‘본 연구는’이다. 연구 목적을 명시하기에 앞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문제점을 설명한 경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본 연구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종결 표현으로는 ‘~하고자 하였다(한다)’,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자’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에 해당한다. 함께 동사는 ‘탐색하다’, ‘분석하다’, ‘모색하다’, ‘알아보다’, ‘도출하다’, ‘파악하다’, ‘제시하다’, ‘고찰하다’ 등이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를 분석하고자 한다.

살펴본 모든 논문의 서론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방안의 문제점,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용들은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변화하고 있다’, ‘-한 상황이다’, ‘-한 실정이다’, ‘-고 있다’라는 표지가 기존 상황을 설명 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나’, ‘-으나’와 같은 역접 어휘 혹은 ‘못하고 있다’, ‘하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기존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 대안 및 연구의 한계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이(가) 필요하다’, ‘-할 필요성이 있다’ 등의 표지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연구 동기

~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하기 위해 ~를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 않는 상황이다.

~ 등의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선행 연구를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기존 상황의 분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선행 연구를 언급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개념이나 분석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다음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단순히 설명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 연구의 문제점 및 한계를 언급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이들이 함께 제시되기도 했다.

선행 연구

현재까지 여러 선행연구들은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점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대한 고찰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기존의 ~ 관련 선행연구들은 ~ 효과를 검토한 연구들과 ~을 평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연구 방법은 본론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론의 마지막에 간략히 제시되어 본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구 목적을 바로 앞에 설명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단, 목적을 언급하면서 방법도 같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둘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논문도 있었다. 사용된 표지로는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는’과 같이 연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과, 의도를 나타내는 ‘-고자 하였다(한다)’가 대표적이었다. 함께 사용된 동사는 ‘분석하다’, ‘살펴보다’, ‘논의하다’, ‘제시하다’, ‘이용하다’, ‘적용하다’, ‘수집하다’, ‘고찰하다’, ‘파악하다’ 등이 있었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하여, ~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 분석을 하였다.

또한 ~뿐만 아니라 ~도 각각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고, ~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를 파악하며, ~를 토대로 ~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연구 내용을 정리해서 서술하는 부분은 앞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연구 목적과 방법, 과정 등을 설명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본고에서는’과 같은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목적을 요약하면서 ‘-고자 하였다’라는 표현도 쓰였지만, 연구 과정을 설명하면서 별다른 어미 없이 ‘-하였다’라는 종결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났다. ‘분석하다’, ‘도출하다’, ‘살펴보다’, ‘제시하다’, ‘파악하다’, ‘이용하다’, ‘수집하다’ 등 서론에서도 쓰였던 동사들은 물론 ‘조사하다’, ‘살시하다’, ‘나타나다’, ‘진행하다’ 등의 다양한 동사들도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먼저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라는 구문을 사용하고 결과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첫째’, ‘둘째’와 같은 서수 표현이나 ‘먼저’, ‘다음오로’, ‘마지막으로’와 같은 순서 표지가 나타났다. 또한 결과 제시에서 자주 쓰인 표지는 ‘-으로 나타났다’, ‘~-임을 확인하였다’, ‘입증하였다’, ‘~임을 알 수 있었다’ 등이었다.

정리

본고에서는 ~을 분석하였고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 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에서 해당 연구의 의의나 시사점, 함의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먼저 직접적인 표지로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함의로는 -’, ‘-임을 시사한다’, ‘-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를 시사하고 있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간접적인 표현으로는 ‘-ㄹ 수 있을 것이다’, ‘-것으로 사료된다.’, ‘-을 보여주고 있다’, ‘-을 확인하였다’ 등이 있었다. 시사점 및 함의를 제시하면서 ‘-해야 할 것’과 같은 당위 표현을 사용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의의는 사실상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해당 연구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언급함으로써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대 효과는 ‘-ㄹ 수 있다’, ‘-ㄹ 수 있을 것이다’, ‘ㄹ 것이라고 생각된다.’, ‘-을 기대한다’ 등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지와 함께 ‘기여하다’, ‘활용하다’, ‘찾다’ 등의 동사가 사용된다.

의의 및 시사점

따라서 ~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를 반영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하면서 연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결론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후속 연구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정책적, 사회적 등의 측면에서 어떤 방법, 대안 등이 필요할지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 ‘-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하다’, ‘-하여야(되어야) 할 것이다’와 같은 표지와 ‘후속 연구’나 ‘향후 연구에서’라는 말이 등장한다. 또한 ‘반영하다’, ‘수립하다’, ‘이루어지다’, ‘마련하다’, ‘활용하다’, ‘고려하다’ 등의 동사가 사용되었다.

향후 방향

따라서 ~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 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의 마지막에서 해당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는 논문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점이다’, ‘-점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계가 있다’ 등의 표지가 쓰인다. 한계와 향후 방향은 이어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가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 한 점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이다.

**공학**

공학 계열에서 살펴본 10편의 논문 모두에서 연구 목적을 밝히는 표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는’ 등을 주어로 하여 ‘~고자 한다’, ‘~고자 하였다’, ‘~에 목적을 두고 있다’와 같은 표지가 나타났다. 함께 쓰인 용언으로는 ‘분석하다’, ‘적용하여’, ‘정리하다‘, ’개발하다‘, ’측정하다‘, ’수행하다‘, ’검증하다‘, ’규명하다‘, ’제안하다‘, ’평가하다‘, ’파악하다‘ 등이 있었다.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 의한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서론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이때 최근의 동향이나 변화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분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때 ‘최근’이라는 단어와 함께 ‘-고 있다’라는 진행형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가 활발하다’, ‘-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고 있는 추세이다’, ‘-해 나가고 있다’, ‘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등의 구문을 통해 최근의 동향을 서술한다. 뿐만 아니라 ‘-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종래에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큰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와 같은 표지를 사용해 기존 상황의 문제점을 언급한다.

연구 동기

최근 ~고 있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 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서론에서 선행연구의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선행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고 새로운 혹은 발전된 방식의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때 선행연구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된 표지에는 ‘기존의 –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기존에는 –을 연구해왔으나’, ‘-등은 –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한계를 지적할 때는 역접이나 부정어를 사용하여 ‘-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 못하였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러나 –가 이루어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등의 표지가 사용되었다.

선행 연구

~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하였으나, ~하지는 못하였다.

~는 ~을 확인하였으며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학 계열은 실험적 증명과 과학적 방법론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과 관련된 표지가 다수 사용되었다. ‘-하도록 한다’, ‘-을 이용하였다’, ‘-을 사용한다’, ‘-을 통해’, ‘-이 사용되었다’, ‘-을 관찰하였다’, ‘-는 방법을 제안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밝히는 목적으로 ‘-을 위하여’를 함께 쓰기도 하였다. 앞서 말했듯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외에 ‘설정하다’, ‘고려하다’, ‘계산하다’, ‘설계하다’, ‘제작하다’ 등의 용언도 활용되었다.

연구 방법

~를 위해서는 ~ 을 설정하도록 한다.

~는 ~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는 ~를 이용하였다.

~을 분석하기 위하여 ~를 사용하였다.

~는 ~을 이용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는’, 과 같이 논문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함께 나온다. ‘-고자 하였다’를 써서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은 간략하게 언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분석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으로 판단된다’, ‘-를 수행하였다’, ‘계산하였다’, ‘측정하였다’, ‘-을 이용하여’, ‘-을 평가하였다’, ‘-한 것으로 사료된다’, ‘설계하였다’, ‘-을 확인하였다’, ‘-을 파악하였다’, ‘-을 제안하였다’, -을 보여주었다‘, ’-을 검증하였다‘와 같은 표지가 등장했다.

정리

본 연구에서는 ~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을 분석하였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을 높이기 위해 ~을 설계하였다.

값을 변화시키며 ~를 찾았고, ~을 확인하였다.

공학 계열의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밝히는 표지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본 연구는’, ‘본 논문에서는’과 ‘라고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을 확인하였다’, ‘-는 것을 가능케 했다’와 같은 표지가 등장했다. 사회과학과 비교했을 때, ‘시사점’이나 ‘함의’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의의

본 연구는 ~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가 어떤 기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언급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 가능성을 열였다’, ‘으리라 예상된다’, ‘-에 적용하고자 한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주로 적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기대효과

향후 ~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시스템은 ~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결론에는 향후에 어떤 연구가 필요할지 혹은 필자가 어떤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향후 연구에서는’,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추후 연구로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차후’, ‘향후 연구로’와 같은 표지와 함께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를 수행할 계획이다’, ‘-하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등의 표지가 나타났다.

향후 방향

따라서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 를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에서는 해당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 ‘-야 할 것이다’, ‘-할 필요가 있다’ 등의 표지가 쓰인다.

한계

본 연구에서는 ~ 를 수행하였으나 ~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약학**

10개 논문 중 4개의 논문에서 ‘[선행 연구 언급] - [연구의 필요성 제시] - [연구 방법 및 목적 제시]’로 이어지는 일관된 논리적 흐름을 보였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선행 연구의 한계점은 해당 연구의 필요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또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는 것이 해당 연구의 목적이며, 이때의 방법론이 연구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개 서론의 구성은 기존의 상황이나 일반적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연구 주제로 좁혀져 가는 논리적 구성을 따른다.

10개 중 8개 논문에서 연구가 이뤄지기 이전의 상황을 언급하는 문장이 발견되었다. 이들 문장의 특징은 ‘보고’, ‘문제’, ‘가능성’과 같은 명사와 ‘-하고 있다’와 같은 현재 서술 표현이다.

기존 상황 분석

~ 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증가하고 있다.

~ 이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고령화추세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

10개 중 7개 논문에서 선행연구에 대해 언급하는 문장이 발견되었다. 이는 연구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와 ‘선행연구’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선행 연구

김영록의 연구에서~, 이유진 등은~

전진아와 이난희에 따르면 ~

선행연구에서는 ~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

10개 중 9개의 논문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문장이 발견되었다. 이들 중 4개 논문에서는 앞서 선행 연구를 언급함과 동시에 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연구의 필요성

그러나 ~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 추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 연구가 적다.

일반적으로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되어있지 않다.

10개 중 7개 논문에서 연구 방법에 대한 문장이 발견되었다. 그중 5개 논문에서는 ‘본 연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의약학 논문에서 방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의약학 논문은 글의 구조상 서론 이후에 연구 방법과 대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연구 방법

이에 본 연구는 ~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추적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고자 한다.

10개의 대상 논문 중 용어의 정의를 언급한 논문은 하나 밖에 없었다. 이는 의약학에서 다루는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잘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념 정의

인식이란 ~을 의미하며 ~

연구의 목적은 10개 논문 중 6개에서 발견되었으며, 대체로 글의 말미에 등장한다. 그리고 6개 중 5개 논문에서 ‘-하고자 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 확인해 보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저자들은 ~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는 ~ 하고자 한다.

이에 저자들은 ~ 하고자 한다.

10개 중 8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이 제시되었다. 이때 ‘본 연구는-’과 같은 표현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결과’, ‘확인’, ‘판단’, ‘분석’과 같은 표현을 통해 연구 결과를 언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리

본 연구는 ~ 확인하였다.

또한 본 방법을 이용하여 ~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 ~ 판단된다.

종합하면, ~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 분석하였다.

10개 중 3개 논문에서 의의와 한계를 나타내는 문장이 발견되었다. 주로 ‘-수 있었다’와 같은 가능 표현이 사용되어 의의가 도출되는 것과는 반대로 ‘-수 없었다’는 불가 표현을 통해서 한계가 드러나는 경향이 드러났다.

10개 중 2개 논문에서 ‘후(後)’와 ‘제(提)’를 이용하여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언

추후에는 ~ 제언한다.

향후 ~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은 10개 논문 중 6개 논문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으로 보인다/사료된다’와 같은 추측성 표현과 함께 결론의 말미에 제시되고 있다.

기대 효과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학 논문의 경우 10개 중 7개 경우에서 결론이 한 문단 내지는 두 문단에 그쳤다. 이는 글의 구조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의약학 논문의 경우 ‘서론-연구 방법-연구 결과-논의/고찰-결론’의 형태를 보인다. 이미 결론에 이르기 이전에 연구 및 실험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와 이에 따른 고찰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전체의 요약에 가깝게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개 논문에서는 아예 결론이 요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처럼 결론부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은 실험적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의약학 코퍼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과학**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작성한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서론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1. 서론’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된다. 결론의 경우 대부분이 ‘4. 결론’과 같이 나타나지만, 요약 및 제언, 결과 등의 방식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자연과학 분야의 서론에서는 진행한 연구에 대하여 그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한다. 또한 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 실험 내용과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연구 방법을 설명할 때는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고, 연구 목적을 설명할 때는 ‘목적’이라는 어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배경 설명

~이 있었다.

~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을 제공하였다.

~이 존재해 왔다.

연구의 필요성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는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필수적이다.

연구방법소개

~를 ~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를 ~과 ~의 입장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의 연구를 참조하여 ~를 분석할 ~단계 틀을 설정하였다.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를 예측한다.

연구 목적

~에 의미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를 검증해 본다.

자연과학 분야의 결론 부분에서는 실험에 대한 요약을 제시한다. 그 후 의의와 기대 효과,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요약을 할 때는 ‘본 연구에서는’이라는 말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의의를 서술할 때는 진행한 연구의 ‘응용’, 적용’,’사용’ 방안을 제시했다. 자세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요약

이제까지 ~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을 살펴보았다.

~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을 측정하였다.

의의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결과는 ~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그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 제시

~하는데 본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에도 ~할 것이라 여겨진다.

한계

~의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이다.

이렇게 각 계열별 논문의 서론과 결론을 유해준(2017)을 참조하여 연구 동기, 목적, 선행 연구, 순서, 방법, 자료, 요약, 의의, 한계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는 계열별 글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론에서는 연구 동기와 목적, 선행연구와 방법을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글을 요약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밝히는 경향이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는 활용형이 많은데, 이들을 모두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의 수가 적어서 일반화 시키기 힘들고, 연구 목적, 동기, 방법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 분류가 명확한 분류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